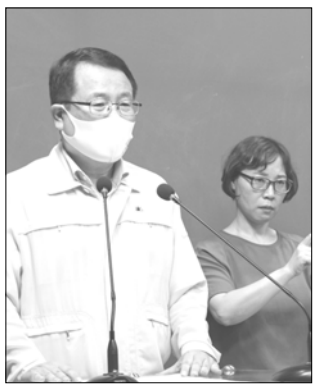
익산시 코로나19 확산 대응 '총력'

정헌율 시장, "종교단체 비대면 예배 호소· 타지역 방문외부인 접촉 자제 요구"



익산시가 지역 9번째(전북 86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종교단체 비대면 예배 전환과 타지역 방문자제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지역감염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지난 28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비대면 현황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지역 확진자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9번째(전북 86번) 확진자는 익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남성으로 지난 18일 전남 나주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경남 202번 확진자의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한 후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초 증상이 발현된 22일에는 오전 9시 자격증 응시 차 전주산업인력관리공단을 방문했으며 당시 응시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전주의 한 식당을 방문해 점심식사를 했고 23일에는 집에 머물다가 24일 오전 11시 익산의 한 의원과 약국을 방문했다.

25일에는 회사에 출근해 오후 1시 35분쯤 편의점을 들러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했으며 26일 오후 나주시로부터 경남 202번 접촉자 통보를 받고 오후 6시 30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2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정확한 동선 확인을 위해 핸드폰 GPS, 카드사용내역,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및 방문지 CCTV 확인 등의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타지역 방문과 외부인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종교시설에는 코로나19 확산추세가 진정될 때까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시는 공공미디어센터를 통해 지난 7월부터 전문인력과 장비, 시설을 대여하고 교육까지 실시해 종교집회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일 예배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TV 스튜디오 공간을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무료로 대여한다.

시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종교시설의 온라인 예배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90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배전환 교육을 7회 실시했으며 촬영 스튜디오 대여 11건, 마이크와 캠코더 등 22회 장비대여를 지원한 바 있다.

정헌율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익산도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다"며"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타지역 방문과 외부인 접촉은 자제하고 종교시설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내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시행 중인 오임선 익산시의원 발의 조례 시 본예산 편성 협의

제8대 후반기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오임선 의원이 제8대 전반기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당시 2020년 3월에 의원발의한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가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노인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협의 결과에 따라, 익산시의 2021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협의를 마쳤다.

해당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익산시 만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해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이 보통 10만원 이상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조례 제정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익산시의 재정상황을 심도있게 고려해 지원 대상을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정했다.

아울러 향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오임선 의원은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가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익산시의 2021년 본예산 편성철이 다가온 만큼 해당 예산이 편성돼 원활하게 지원될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부모학교, 구성애 대표의 성교육 온라인 강의

군산시가 지난 28일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구성애 대표의 '우리 아이 성교육'이란 주제로 온라인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푸른아우성 구성애 대표를 초청, 자녀 성교육법과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한 부모 역할에 관한 강연과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힐링토크쇼 강연은 군산시 부모학교 프로그램의 하나로, 군산시가 후원하고 전북 군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주관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올바른 자녀 양육 태도와 기술을 배워 바람직한 가정을 제시하는 교육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감정코칭(기본교육, 실습교육), 회복 탄력성 교육, 부부연수,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숲·놀이 체험 등 다양한 활동으로 12월까지 이어진다.

김창환 복지환경국장은 "자녀성장에 따른 성 이해가 양육과정에서 중요한 만큼 이번 강연에서 부모들이 적극적인 질문을 통해 자녀의 성 궁금증이 잘 해소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모학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063-734-1391)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 금강권역, 영농환경 대폭 개선 전망

익산 금강권역의 영농환경이 대대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28일 추진 중인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 기재부의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고 최근까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조사를 진행해 왔다.

2021년부터 10년 간 금강권역에 총 사업비 4,146억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익산지역에 629억원이 지원된다. 총 1,449ha를 대상으로 경지재정리사업(551ha), 경리정리사업(541ha), 밭기반정비사업(357ha), 용수로연결(21km) 등을 추진해 영농환경을 개선한다.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의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까지 농립축산식품부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2022년부터 세부계획을 수립해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이 본격화되면 용수공급이 어려운 농경지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 농업인의 영농편의 및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우체통거리, 신규 관광명소로 탄생

월명동 우체통거리, 홍보관 포토존·소원 우체통 설치

군산시는 소규모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월명동 우체통거리 홍보관을 조성해 관광객이 근대역사거리에서 우체통거리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광명소를 마련했다.

군산 월명동 우체통거리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해 선정된 소규모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월명동 우체통거리 홍보관을 조성해 관광객이 근대역사거리에서 대학로를 건너 우체통거리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광명소를 마련했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 주민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점단위 재생사업을 지원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체통거리 홍보관은 1층은 홍보공간과 개방화장실, 2층은 회의실과 사무실로 구성된 주민공동체 공간으로써 군산우체통거리경관협정운영회의 거점 역할과 동시에 방문객에게는 사랑방 역할을 할 예정이다.

홍보관 벽면에는 우편 배달부와 편지 등 추억의 물건들이 설치된 포토존을 조성했으며, 소원 우체통을 설치해 소원을 담아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특히 우체통거리는 도시재생 우수사례로 대두되며 전국 지자체에서 방문이 줄을 잇고 있어 최근 3년간 100여 팀이 넘는 견학단이 방문했으며, 이번 홍보관 및 포토존 조성을 통해 주민주도 도시재생의 선진사례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기만 도시재생과장은 "우체통거리만의 문화 콘텐츠를 확보해 하나의 관광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도시재생사업이 주민공동체 발전의 기회와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추가 신청

군산시가 석면으로 만들어진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 발암물질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부터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군산시는 지난해까지 총 975가구의 석면 슬레이트를 처리했으며, 올해에는 작년보다 증액된 총 9억5,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90가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부터 사업 신청을 접수해 현재 143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완료했으며, 9월 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로, 관할 읍면동에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 신청서와 건축물 위치도, 현장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현지 실사를 거쳐 가구당 최대 344만 원의 슬레이트 지붕철거비를 지원하며, 특히 장마철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슬레이트가 파손된 경우 신청 즉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 철거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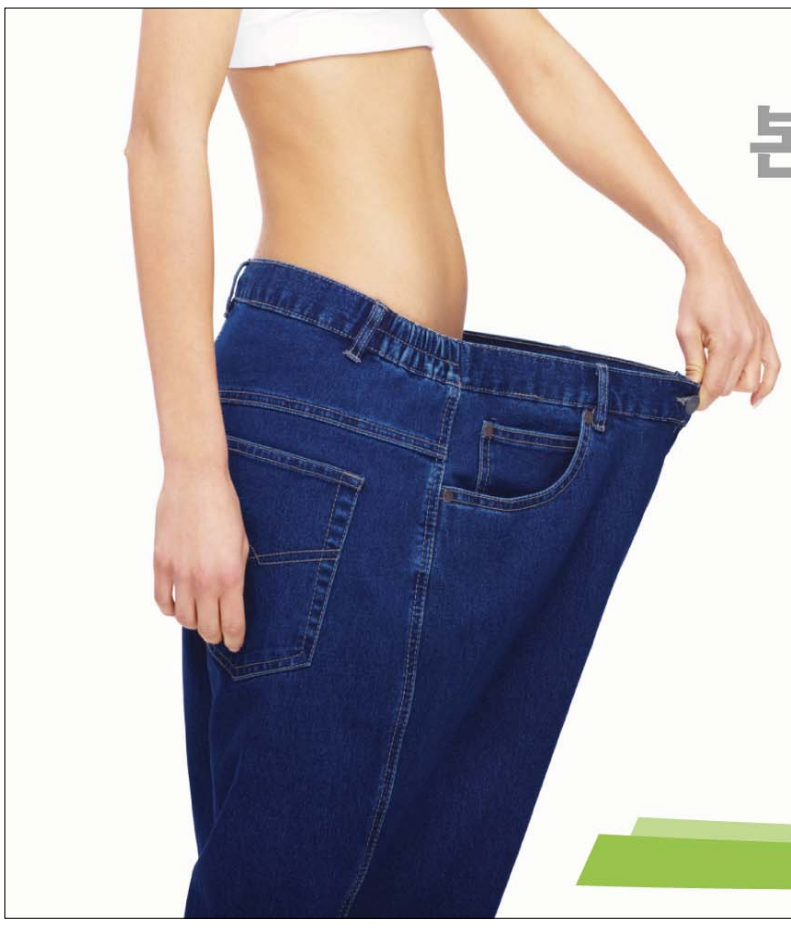
코로나19 극복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호응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원 한도액을 확대한 지난 7월 이후 최고 4억원 한도를 지원받은 업체는 모두 23개, 금액은 70억원에 달한다. 이는 7월부터 2개월 동안 전체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금액 94억원의 74.46%를 차지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앞서 시는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인들에게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융자금 지원범위를 4억원까지 확대했다. 신규 이차보전뿐 아니라 현재 시에서 이차보전금 지원 받는 업체도 4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하다.

/익산=장양원 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